전북현대, 리그 6연승 도전

내달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강원FC와 K리그1 18라운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연이은 복수혈전을 승리로 장식한다.

전북현대가 오는 30일 강원FC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불러들여 K리그1 18라운드를 치른다.

올 시즌 상주와 강원에 패배한 전북은 지난 상주전 승리에 이어 이번 강원전도 반드시 승리해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최근 리그 5연승을 달리며 승점 1점차로 선두 울산을 맹추격하고 있는 전북은 연승의 기세를 이어가 강원과의 홈경기도 승리를 자신한다.

특히 전북은 올 시즌 7승 1무로 홈에서 패배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살아난 '닥공'과 함께 강원의 수비벽을 허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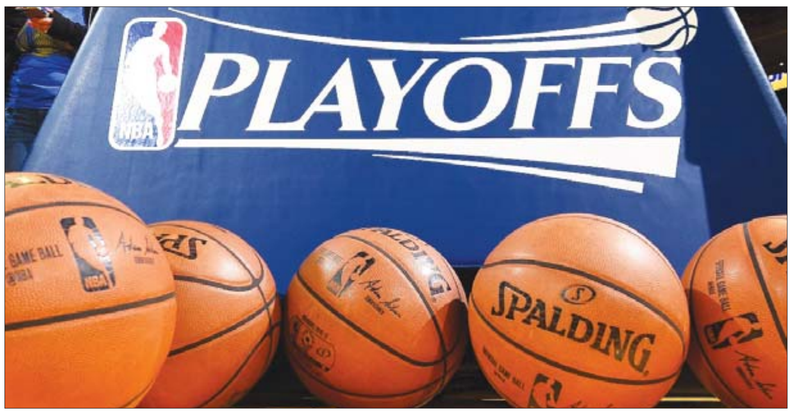
전북은 살아난 공격력과 리그 최소 실점(11실점)으로 공,수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강원은 FC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점(26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이다.

또한 강원은 최근 6경기에서 4무 2패로 승리가 없어 팀의 분위기 측면에서도 전북이 크게 압도한다.

리그 6연승과 설욕전 성공을 위한 선봉장은 전북 유니폼을 입고 리그 5경기 만에 3골 1도움을 올리며 5연승을 이끈 구스타보다.

구스타보는 양측 날개인 바로우, 한교원 등과 함께 골 사냥과 함께 선두 탈환을 노린다.

한편 이번 경기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르게 된다. /뉴시스



흑인 피격 항의… NBA 플레이오프 취소

경기 일정 추후 공지 예정

흑인 피격 사건으로 27일(한국시간) 예정됐던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가 모두 취소됐다.

NBA 사무국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밀워키-올랜도, 휴스턴-오클라호마시티, LA레이커스-포틀랜드의 경기가 순연됐다. 경기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플레이오프 취소는 밀워키 선수단이 경기 출전을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

밀워키 선수단은 지난 24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백인 경찰들에 총격을 받은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경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워키는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미국은 지난 5월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으로 민감한 상황이었다.

NBA 경기에서도 코트 바닥에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또다시 흑인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NB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시즌이 중단됐다가 7월 말 어렵게 재개했다.

그러나 이번 플레이오프 취소에 이어 28일 예정된 토론토 랩터스-보스턴 셀틱스의 동부 콘퍼런스 2라운드 1차전도 양 팀 선수들이 보이콧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시스

포항제철고 선수들이 2020 K리그 18세 이하(U-18)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뻐하고 있는 모습.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포항제철고,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

결승전서 울산현대고를 3-1로 꺾어
MVP 홍윤상 등 주요 상도 휩쓸어

2020 K리그 18세 이하(U-18) 챔피언십에서 포항 스틸러스 유스팀인 포항제철고가 우승했다.

포항제철고는 26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울산현대고를 3-1로 꺾고 사상 첫 2회 우승에 성공했다.

'유스 동해안더비'로 관심을 끈 이번 경기에서 포항제철고는 우승을 거두며 형들의 복수에 성공했다.

포항은 올해 울산과 동해안더비에서 두 차례 모두 패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항제철고에서 가장 돋보인 활약을 펼친 홍윤상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민서(공격상), 장성돈(수비상), 박은우(골키퍼상), 김용학(베스트 영플레이어상) 등이 부문별 상을 휩쓸었다.

최우수 지도자상도 포항제철고 백기태 감독과 이규용 코치가 받았다.

울산현대고에선 박건웅이 우수선수상을 받았고, 득점상은 8골을 터트린 엄지성(금호고)이 차지했다. /뉴시스

네이버 · 네이트도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중단

네이버와 네이트가 27일부터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앞서 다음 포털을 통해 스포츠 뉴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도 지난 7일부터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일시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국내 3대 포털사이트에서 접하는 스포츠 뉴스에 당분간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을 읽을 수 없게 됐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7일 스포츠 선수의 인격권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스포츠 댓글의 구조적인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스포츠 뉴스와 영상의 댓글을 닫는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날부터 스포츠 뉴스에서, 9월 10일부로는 스포츠 영상에서 댓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네이트도 이날 홈페이지에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네이트도 지난 7일 최근 악성 댓글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는다는 판단에 따라 스포츠 뉴스에서 댓글을 잠정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 네이트는 댓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기사에 대한 공감의 표현, 소통 공간의 부재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각 기사페이지 하단에 '최고예요', '훈훈해요', '어이없어요', '속상해요', '화나요' 등 다양한 반응 및 공감을 담아낼 수 있는 5가지의 공감 버튼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뉴시스

메시의 차기 행선지 '맨시티'?

외신 "구단이 3년 계약 제시" 전해
해외 도박사도 메시 행선지 두고 베팅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와 이별을 결심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의 차기 행선지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떠오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 나시온은 27일(한국시간) "맨시티가 메시에 3년 계약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맨시티 이적을 위해 바르셀로나 시절 스승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며, 맨시티 축구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 나시온은 "메시는 이미 맨시티 이적을 결정했다. 가족과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맨시티에는 은사인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절친한 친구인 세르히로 아구에로도 뛰고 있다.

또한 맨시티는 3년 계약을 채운 뒤 메시가 원할 경우 미국프로축구(MLS) 뉴욕시티에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외 도박사들도 메시의 차기 행선지를 두고 베팅을 시작했다.

맨시티 이적 배당률은 2/1로 가장 낮고, 파리 생제르맹(8/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2/1), 첼시(14/1), 인터밀란(18/1) 순이었다.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프로 데뷔한 메시는 16년 동안 731경기에 출전해 631골을 터트린 레전드다.

하지만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2-8 대패를 당한 뒤 이적을 결심하고, 최근 팩스로 구단에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은 2021년 6월 만료된다.

그러나 메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적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